

이원택, 새만금 200조 투자 승부수

〈민주 전북도지사 후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
“전북 산업구조 바꿀 것”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새만금을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200조원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본격 발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전북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만금에 300만 평 규모의 AI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총 2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중공업 임원 출신인 신원식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동석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과 기업 유치 전략을 설명하며 힘을 보탤다.

이 후보는 새만금이 AI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전북이 기업을 쫓아다니는 시대가 아니라 기업들이 먼저 새만금을 찾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광활한 산업부지 △국제공항·항만·철도를 갖춘 트라이포트 물류망 △인공지능 우수 공급 능력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200조원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난 문제를 언급하며 새만금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전 16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송전망 문제로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전장 거점을 찾고 있고 그 대안이 새만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새만금을 단순 제조단지 가 아닌 ‘AI 반도체 올인원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100개사를 함께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MS·구글·네이버·현대차 등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센터 유치와 피지컬 AI 기반 로봇공장 및 테스트베드 구축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북 한토기업들도 첨단 산업 밸류체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대한민국 AI산업의 심장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약 2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전북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산업단

지 조성이 아니라 전북의 인구·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는 교육·금융·문화 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에는 국제학교를 설립해 글로벌 인재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구상이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반도체 공장의 이전이 아니라 미래 AI 중심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AI반도체 심장부”라며 “피지컬 AI와 로봇 시대가 본격화되면 AI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수소연료 저장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새만금 AI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중앙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사업은 대통령·정부·국회·민주당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국가 프로젝트”라며 “집권 여당 도지사만이 정부 지원을 실질적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력과 용수, 트라이포트 인프라 속도감 있게 구축해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며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압도적 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이 대통령과 호흡 맞는 전북도정 필요”

민주 진성준 의원, 이원택 도지사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으로 전북 전주 출신인 진성준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강서구)이 2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았다.

진 의원은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진 의원은 이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이번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선거 결과가 도정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문제가 본선 결과를 흔들 정도의 사안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보궐 선거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북도민에게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며 “도민들께서 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는 새만금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



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새만금 투자와 전북 발전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 후보를 지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접전 양상은 김 후보 개인 경쟁력이라기보다 공천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이 소외받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도 전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동행했으며, 진 의원은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와 동행하며 동시 출마를 약속했다. 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도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멈추지 않는 전북, 전북형 르네상스 조성”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체육·문화·관광 공약 발표

‘도민 후보’를 자임하며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관영 후보(무소속, 기호 7번)가 27일 체육·문화·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12대 공약을 발표하며 “멈추지 않는 전북, 전북형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은 도민의 일상복지로, 문화는 미래산업으로, 관광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류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금까지 각각 놓여져 있던 체육·문화·관광을 하나의 성장산업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주의 한옥과 음식, 남원의 판소리, 무주의 태권도 고창의 자연과 역사, 군산의 근대문화, 새만금의 수변공간 등 전북은 세계에 내놓을 자신이 충분하다”며 “이제는 이를 산업과 경제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우선 체육 분야 핵심 공



김관영 후보가 2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은 도민의 일상복지로, 문화는 미래산업으로, 관광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체류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지금까지 각각 놓여져 있던 체육·문화·관광을 하나의 성장산업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약까지 함께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북 연구 프로야구 11구단 창단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북형 시민구단 창단과 퓨처소 리그 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11구단 창단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4개 시·군 파크골프장 및 스마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새만금 해양레저 스포츠 특구 조성 △소외된 체육인 지원을 위한 체육인 복지케어 시스템 구축 △무주 태권도원을 활용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체육계 예산 독립 및 종합 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전북 K-POP 아레나·돔구장 조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전북 e스포츠·게임문화산업 메카 조성 △K-콘텐츠 제작거점 및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구축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설립 추진 △국립 관소리산업 복합단지 조성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 및 생활문화 SOC 확충 △국립 모두예술플랫폼 건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국립 모두예술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예술의전당과 창의센터, 교육센터 등을 조성하겠다”며 “문화적 재생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는 전북형 예술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전북 투어패스 2.0을 통해 관광지 입장과 교통, 숙박, 체험, 음식, 지역상권 결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형 위계이전 활성화 △K-미식 관광 및 전북 푸드로드 조성 △MICE 산업 및 국제회의도시 육성 △친환경 신아파트단지 조성 △아간편방 특화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혁신당 “떠나는 전북을 끝내겠다”

전 세대 정착형 5대 공약 발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청년 유출과 장년층 재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대 정착형 5대 공약을 발표하며 “떠나는 전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 당원 10 여명이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성장하고, 일하고, 잘 살아가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한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도상 위원장과 비례대표 도의원 및 시·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도 시군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북의 위기는 단순한 청년 유출만이 아니라 장년층 재취업과 농촌 고령화, 의료·돌봄 부족이 함께 이어지는 복합 위기”라며 “청년은 돌아오고 장년은 다시 일어서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공약은 새만금과 무주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지역대학 상생 동

맹 일자리 마스터플랜이다. 두 번째 공약은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를 연계한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창업 생태계 구축이다.

세 번째 공약은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다. 읍·면 단위 공공 통합돌봄 전담팀을 운영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생활보조를 지원하고,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에는 전북형 닥터버스'를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 공약은 빈집 활용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 정책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 빈집 유휴지를 활용해 농촌 빈집과 구도심 노후주택을 공공이 매입·리모델링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000원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40·50대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대 정착형 5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업기술 교육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공약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리자갈 프로젝트’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수의계약과 민간보조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누구나 예산 집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물과 채용 비리, 횡령, 성비위 등 중대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윈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6·3 지선, 이 대통령과 함께할 지방 동반자 선택”

민주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진성준 국회의원과 합동 유세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할 지방 동반자 선택하는 선거”로 규정하며 민주당 원팀 승리를 강조했다.

조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이끌 민주당 후보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민주당 원팀의 승리만이 전북 대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선거운동 7일째를 맞은 조 후보는 오전 7시30분부터 전주 중



화신동 일대에서 거리 유세에 나섰다. 현장에는 지원 유세를 위해 전주를 찾은 진성준 의원이 함께해 시민들에게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진성준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지역 발전을 이끌 도지사와 시장을 선택해야 한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와 진성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도지사로 이원택 후보가 적임자”라고 밝혔으며, 조 후보 역시 이에 공감을 표하며 민주당 원팀 승리를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북대 기습 시위 배후 밝혀야... 철저 수사 촉구”

민주 이성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이 지난 25일 전북대학교 구성문 앞에서 발생한 기습시위와 관련해 “선거 질서를 흐드는 조직적 정치공작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유세 현장에 일군의 무리가 난입해 고성파 연호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해 행위”라며 “우발적 충돌인지, 사전에 기획·동원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습시위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윤모 씨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제보를 받았으며, 현재 전북지역 체육단체 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 인사들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에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운천 전 의원이 SNS에 김관영 후보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사실인 경우 자당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언급하



면서 실제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전북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도민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당국을 향해 “현장 CCTV 확보 및 관련 인물 신원 확인 △기습시위의 사전 기획·조직 여부 및 배후세력 추적 △특정 후보 캠프나 정치세력과의 연계 정황 확인 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특별취재반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 대응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에서의 소란한 언동, 투표용지 훼손 등 금지되는 언동을 안내하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에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 및 선거관리 방해행위는 금지되며, 투표용지 훼손 및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도 불가능하다. /특별취재반